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161-220
<https://doi.org/10.29212/mh.2023..129.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三國時期 七重城에 대한 諸檢討와 戰略的 位相*

정동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고고학 측면에서 바라 본 칠중성
 3. 문헌 기록 속의 칠중성
 4. 맺음말 - 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초 록 칠중성은 경기도 파주의 칠중성으로 비정되는 성곽으로 그 위치가 명확하게 비정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칠중성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영유권 변천을 통해 당시의 접경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칠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는 토성 혹은 토루나 柵과 같은 형태의 칠중성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영유하면서 칠중성을 차지하였는데, 특별한 개·보수 없이 그대로 연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신라가 차지하면서 석축 형태로 개축하였다.

칠중성은 임진강의 여울인 술탄과 호로탄을 통한 도하를 감시·통제하였는데, 이를 통해 평양-서울 교통로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또한 임진강 유역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 되면서 칠중성은 남·북진 세력 모두 진군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칠중성은 7세기 전반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한다면 한강 유역 방어와 북진의 거점성 역할을 하던 북한산성으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음으로써 한강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에 있어 고구려의 남진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기능은 나당 전쟁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칠중성은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파천로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으로 기능하였다. 나아가 포천 반월산성과 더불어 7세기대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핵심으로 거듭났다.

주제어 : 칠중성, 임진강, 술탄, 한강, 북한산성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2,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머리말

주지하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삼국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국의 교차 지대 즉 접경이 여러 차례 변화하였는데, 함경남도 안변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 지대를 흘러 서해로 유입되는 임진강과 그 인근 유역이 서북한과 한반도 중부를 잇는 남북중단로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¹⁾ 속에서 대표적인 접경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었다. 한편 삼국의 전투는 주로 성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임진강 유역에는 삼국이 축조한 성곽이 다수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성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칠중성(七重城)이다.

파주 칠중성은 『삼국사기』, 『당서』, 『자치통감』 등 각종 문헌에 보이는 성곽으로²⁾ 7세기경 삼국통합전 속에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 그리고 나당전쟁 속에서 신라와 당(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칠중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의 성곽 가운데 삼국 관련 문헌에 보이는 성곽과 명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성곽은 매우 적는데, 이 점에서 칠중성은 역사적

1)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54쪽.

2) 조선시기에 편찬된 지리지를 보면 칠중성은 ‘吐吞(古)城’ 혹은 重城, 칠중성이 위치한 중성산은 ‘城山’으로 불렸다(『신증동국여지승람』 積城縣 古跡條; 『동국여지』 積城縣 古跡條; 『여지도서』 京畿道 積城 古跡條; 『대동지지』 積城 城池條). 한편 ‘토탄(古)성’에서 ‘토탄’에 대해 ‘뺏기고 빼앗는다’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칠중성이 임진강을 둘러싼 삼국간의 격전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명칭으로 추정하기도 하고(홍재선, 「적성 칠중성 조사약보」, 『불교미술』 7, 1983, 22·31쪽), 임진강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35쪽).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삼국의 접경, 지리·교통적 그리고 군사·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임을 인정받으면서 칠중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임진강 유역을 둘러싼 교통로와 관방 체계 등을 규명하려는 연구 성과 속에서 대거 소개되었다.³⁾

그런데 칠중성은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하였고 이에 따른 군부대의 진지 및 참호 개설로 인해 지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⁴⁾,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곽의 형태나 구조 그리고 초축 시기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등 정확한 현황이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칠중성과 관련한 문헌 기록 또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도 매우 소략하여 성곽을 둘러싼 자

3)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 2005 ;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 2009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대구사학』 130, 2018 ; 지종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파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8, 2018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김병희·서영교,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 2021.

4) 칠중성은 1942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졌고(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1982년에는 동국대학교 박물관(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985~1986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문화유적』, 1986), 1992~1993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1994년에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1998~1999년에는 한양대학교 박물관(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000년에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와 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2005~2006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한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고고학적 조사와 문헌 기록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참고하면서 칠중성과 관련한 역사적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축조 주체와 시기를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칠중성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영유권 변천을 통해 당시의 접경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칠중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위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고고학적 측면에서 바라 본 칠중성

가. 고고조사 내용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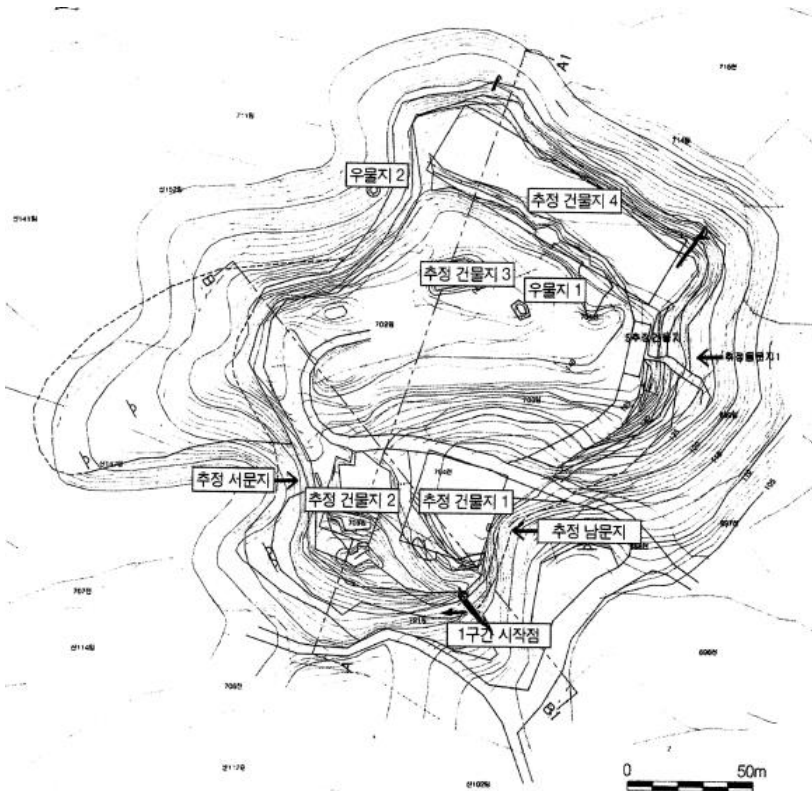
칠중성은 임진강 중류 남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위치한 중성산과 그 서쪽 서봉(西峰)의 8~9부 능선상에 축성된 테피식 산성이다.⁶⁾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서 ‘겹성벽을 갖추었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모성(母城)으로 칠중성과 그 주변에 6개의 자성(子城)을 축조하면서 유래하였다는 견해 등이 있지

5) 칠중성의 고고 조사에 대해서는 주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을 참고하였다.

6) 중성산을 주봉으로 하고 西峰을 연결시킨 산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혹은 중성산 북쪽으로 능선을 휘돌아 남쪽으로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내려오다가 동쪽 부분에서 작은 계곡을 감싼 산성(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으로 보면서 포곡식으로 파악하기도 하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테피식과 포곡식의 중간형태로서 산비탈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선사와 고대』 2, 1992, 112쪽).

만, 성곽 주변에 흐르는 임진강의 옛 명칭인 ‘칠중하(七重河)’⁷⁾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그림 1〉 칠중성 평면도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131쪽.

7) 『대동지지』 권3, 積城 山水條, “茂灘 西八里 神智江下流 其次爲長端高浪津 右三處 通稱臨津江 三國時以比稱七重河”

8)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2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8~29쪽 ;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6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쪽.

성곽이 위치한 중성산과 서봉은 감악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로서⁹⁾ 그 해발은 각각 147m와 142m로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주변으로 낮은 구릉과 평야가 이어지고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임진강 일대 주변을 살피는 데 매우 유리한데¹⁰⁾, 북서쪽으로는 연천 호로고루와 고랑포, 북쪽으로는 파주 육계토성과 주월리 일대, 남동쪽으로는 적성면과 감악산(해발 675m), 남서쪽으로는 파평산(해발 495m)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 성곽이 자리잡고 있는 입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고동저로, 북동쪽이 가장 높고 현재 성내진입로가 있는 동남쪽이 가장 낮다.¹¹⁾

성벽은 남벽 80m, 서벽 200m, 북벽 140m, 동벽 183m로 전체 둘레가 603m이고, 남북 너비는 198m, 동서 너비는 168m이다(그림 1). 화강암과 편마암 그리고 일부 현무암 석재를 면석으로 가공하여 ‘品’자형으로 쌓았으며, 뒷채움은 주로 마름모꼴에 가까운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긴 방향을 면석쪽으로 놓았고 할석과 할석이 엇물리도록 하였으며 사이의 틈에는 강돌이나 흙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축조방식으로는 외벽으로만 이루어진 편축식,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협축식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아 방어가 취약한 남벽과 동벽에서 협축식이 확인되고 있다.

성벽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벽과 남벽의 여러 구간에서 내벽, 외벽, 외벽기단부 보축성벽 등 성벽 중복이 확인된다는 점이다.¹²⁾ 예컨대 동문 근처 성벽구간에는 1차 외벽과 2차

9)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4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9쪽 ; 앞의 논문, 2005, 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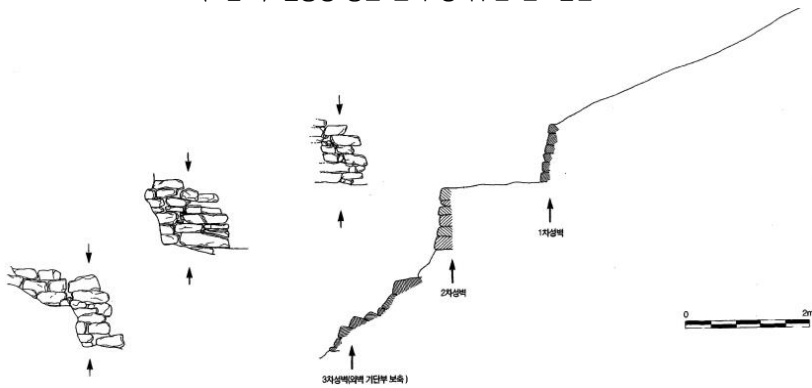
1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37쪽.

11)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0쪽 ; 앞의 책, 2006, 84쪽.

12) 홍재선은 동·남·서편에서 이중축성, 북편에서 한겹의 축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하였지만(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7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은 겹성벽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육군사관학

외벽 그리고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가공한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2차 외벽은 1차 외벽에서 3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암반면에 점토+모래로 다진 후 그 위에 장방형의 화강암·편마암 성돌을 쌓았다. 그리고 두 외벽 사이에는 2차 외벽의 뒤채움돌이 있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2차 외벽에서 1m 떨어진 지점에 있고, 뒷심을 기울이며 상단으로 갈수록 들여쌓기를 하여 부채꼴 형태를 이루고 있다(그림 2).

〈그림 2〉 칠성성 동문 근처 성벽구간 단·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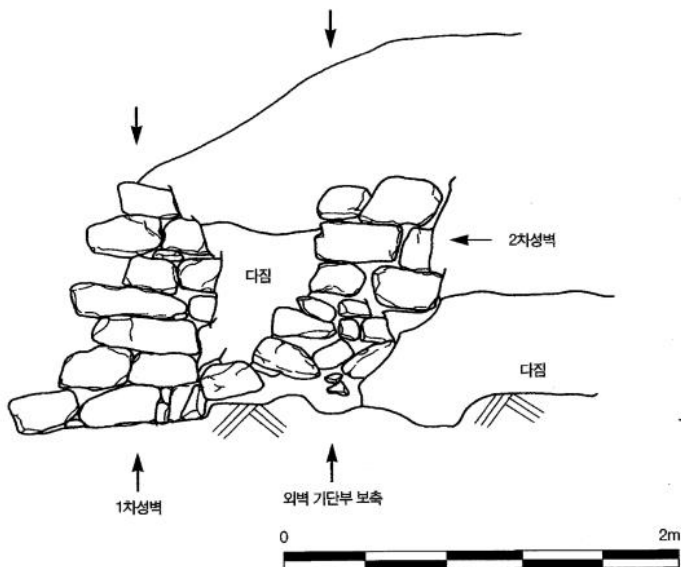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1, 145쪽

현재 성 내부로 들어가는 동벽진입로에도 1차 외벽과 2차 외벽 그리고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이 중첩되어 있다. 1차 외벽은

교 육근박물관, 앞의 책, 1994, 38~40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한편 朝鮮總督府의 조사 보고를 보면 칠성성에 대해 ‘이중 원형’ 이라고만 기록하면서 ‘겹성벽’ 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내성과 외성을 갖추었다는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2, 47쪽), 홍재선은 내성과 외성(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8쪽), 민덕식은 내성과 나성(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을 갖추었다고 보고 하기도 하였다

‘L’자형으로 삭토하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른 후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을 쌓았으며, 뒷채움은 점토와 잡석을 섞어서 다졌다.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은 1차 외벽에서 90c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부정형의 할석으로 쌓았는데, 뒷심을 기울이며 쌓으면서 비스듬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2차 외벽은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을 해체한 후 그 위에 축조하였고, 1차 외벽과 같은 장방형의 편마암 성돌로 쌓았다. 1차 외벽과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두 성벽이 접하는 부분이었다고 추정된다 (그림 3).

〈그림 3〉 칠중성 동벽진입로 성벽구간 단·입면도



* 출처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파주시, 2001, 148쪽

문지는 동문, 동남문¹³⁾, 서문 등 3곳이 확인되었다. 동문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능선,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에서 올라오는 길,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에 있는 건물지로 내려가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다. 동남문은 적성면 구읍리에서 올라오는 자연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서문은 적성면 두지리에서 올라오는 계곡선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곡 양 옆으로 토루 흔적이 있다. 한편 수구지는 동남문 근처에서 한 곳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동남벽 내부의 평탄지,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중성산 정상부,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 동문 내부 등 5곳에서 확인되었는데, 군사시설 개설 등으로 인해 대부분 원형을 파악할 수 없다. 남벽 내부의 서문과 마주하는 지점 및 중성산 정상부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내·외의 조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각각 망대와 장대로 추정되고 있다.¹⁴⁾ 북벽 내부의 완만한 평탄지에 자리잡은 건물지는 성곽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지인데, 중간에 1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하로 2개의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물지가 서북벽 바깥 20~25m 지점과 동문 내부 건물지의 서쪽 지점 등 2곳에서 확인되었다.¹⁵⁾

성곽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기와로, 모두 암키와와 수키와 등의 평기와이다.¹⁶⁾ 승문, 종선문, 사선문, 무

13) 민덕식, 국립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등은 남문으로 보고하였는데(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4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3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131쪽 도면 1), 본 고에서는 동벽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남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1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2쪽.

15)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2개 이외에 또 다른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4쪽).

16) 칠층성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해서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6·29쪽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43쪽 ;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

문, 사격자문, 어골문, 격자문, 기하문 그리고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가 출토되었고, 또한 고구려¹⁷⁾, 백제¹⁸⁾, 신라, 고려, 조선 등 다양한 국가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신라계 기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벽 보축성벽에서 ‘七’자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성곽명과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으며 사격자문 계통으로 신라계 양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기와 다음으로 출토량이 많은 유물은 토기편으로 고배, 병, 시루, (광구)호, 인화문 뚜껑, 발형 토기, 완,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²⁰⁾ 백제계²¹⁾와 고구려계²²⁾의 토기편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나, 신라

학과, 앞의 책, 1999, 231~235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6~237·239~240쪽;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9~302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 17) 홍재선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고구려 계통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4~25쪽;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서벽에서 출토된 니질의 승문 기와 1점을 고구려 기와로 추정하였고, 당초문 기와를 고구려계로 파악하였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쪽). 다만 삼국의 기와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18) 홍재선이 부여 청마산성과 논산 황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백제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3~24쪽), 삼국의 기와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1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4쪽.
- 20) 칠중성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서는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7~30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2~43쪽;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233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239쪽;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02~307쪽 등도 참고하기 바란다.
- 21) 홍재선은 부여 청마산성 입구의 버텨발과 공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백제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홍재선, 앞의 논문, 1983, 29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 심발형토기(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회백색 연질토기편과 흑색 마연토기를 백제 토기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다만 삼국의 토기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고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22)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회흑색과 황갈색 토기편(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0, 234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는 흑색의 연질토기편 일부를 고구려계로 보았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4·267쪽).

계 토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²³⁾ 기와와 토기 외에는 철기로 낫, 솔,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나. 축조 주체 및 시기 검토

칠중성은 수개축의 흔적이 있을 뿐더러²⁴⁾ 삼국의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칠중성을 둘러싸고 삼국간 치열한 쟁탈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 내용과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맞물려 칠중성이 언제 그리고 어느 국가에 의해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칠중성의 고고학적 양상을 살펴보면, 칠중성 남벽에 보이는 외벽기단부 보축성벽의 경우 가공한 장방형의 석재로 쌓았고 매단 들여쌓기를 하였으며 면석의 뒷부분을 앞부분보다 낮게 하여 부채꼴을 이루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축성벽은 하남 이성산성, 서울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 경기도내 신라 성곽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7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²⁵⁾ 한편 외벽기단부 보축성벽과 체성벽 간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보축성벽 내외부의 점토층에 혼합된 기와가 뒤채움에서 보이지 않고 보축성벽의 기단석이 체성기단석보다 높다는 점을 들면서 동시 축조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차 외벽과 2차 외벽의 경우에는 크기나 형태 그리고 축조방법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3)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1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5쪽.

24) 예컨대 남벽 일부 구간에서 중수 흔적이 확인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51쪽).

25)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4쪽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2~253쪽 ;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남경 고찰」, 『고구려연구』 11, 2001, 34쪽.

고 하면서 축조시기차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고 있는데,²⁶⁾ 그렇다면 현재 보이는 석축 산성의 모습은 7세기경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신라계로, 특히 기와와 토기는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 이성산성, 아차산성 등 경기도내 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중심연대를 7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대거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를 보면 칠중성은 638년 3월에 ‘칠중성 남쪽의 커다란 돌이 스스로 35보 움직였다’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사는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수록되어 있다.²⁸⁾ 또한 이어지는 기사에서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고 하여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²⁹⁾ 고고 자료와 문헌 기록 모두 신라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신라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고 동문지 안쪽의 평탄지에 신라 성곽에서 볼 수 있는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신라가 처음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³⁰⁾

전술하였듯이 칠중성에 대해 신라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하나³¹⁾, 여러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³²⁾ 삼국 가운데 백제가 3세기 후반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60·251쪽.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255~256쪽.

28)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3월, “七年 春三月 七重城南大石自移三十五步”

29) 본 고 기사 A를 참고하기 바란다.

30)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231쪽.

31) 연천 옥녀봉산성 및 군자산성과 더불어 6세기 이후 고구려와 대치했던 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428쪽).

32) 홍재선, 민덕식, 김덕원 등이 백제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홍재선, 앞의 논문).

~4세기 전반경에 임진강 유역을 처음으로 차지하였고,³³⁾ 당시 백제가 임진강 유역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백제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고 강원도 평강으로 추정되는 부현(斧縣)에서 말갈(동예)과 접경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³⁴⁾ 석두성(石頭城)과 고목성(高木城)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³⁵⁾, 석두성은 고구려의 소읍두현(所邑豆縣)으로 연천군 삭녕 일대³⁶⁾, 고목성은 고구려의 공목달현(工木達縣)으로 연천군 연천읍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³⁷⁾ 그리고 392년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략하면서 7월에 석현성(石峴城)을 포함한 10여 개의 성 그리고 10월에는 관미성(關彌城) 등 백제의 성을 빼앗았다고 하는데³⁸⁾ 석현성은 파주 일대³⁹⁾, 관미성은 임진강과 한강 하구의 합류처⁴⁰⁾ 그리고 10여 개의 성 가운데 일부는 임진강 유역에 위치

문, 1983, 17~22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9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39~341쪽).

33)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57~58쪽.

34)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176~177쪽.

35) 『삼국사기』 권23, 百濟本紀1, 溫祚王 22년 8월.

36)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a, 356쪽. 石頭城은 『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8년 5월조와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5월조에도 보이지만, 이때 석두성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기 때문에(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62쪽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 2004, 30쪽) 동일한 성곽이라고 볼 수 없다.

37) 이병도, 앞의 책, 1976a, 356쪽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 1976, 120쪽.

38)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사는 『삼국사기』 本紀의 기록임을 밝힌다.

39) 石峴城을 신라 波平縣 즉 波書平史의 훈차로 보면서 파주 파평면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1~182쪽). 한편으로는 關彌城과 연결되는 교동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나당전쟁기에 보이는 석현성과 동일시 하면서 칠중성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주 일대로 비정하기도 한다(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54~156쪽).

40)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70~71쪽 ; 佐伯

하였다고 추정된다.⁴¹⁾

한편으로 칠중성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파주 육계토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백제에 의해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⁴²⁾ 즉, 3~4세기 백제와 말갈·한군현(漢郡縣)·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에서 접경을 형성하고 백제가 임진강 이남에 성곽을 다수 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충지에 자리잡은 칠중성의 입지를 감안할 때 당시 백제가 축조한 성곽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⁴³⁾

칠중성 주변 입지가 백제 도성인 서울 풍납토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토대로 백제 성곽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술하였듯이 칠중성 북쪽에는 육계토성이 있다. 육계토성과 풍납토성을 비교해보면 두 성곽 모두 토성이고 각각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강 본류의 충적대지 남안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육계토성의 배후에는 칠중성과 감악산, 대안(對岸)에는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이잔미성이 있고 본류에는 사마천과 석장천이 합류하는 반면, 풍납토성의 배후에는 이성산성과 남한산, 대안에는 아차산성이 있고 본류에는 중랑천과 왕숙천이 합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계토성과 풍납토성 사이에 입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유사한 입지 속에서 이성산성이 풍납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

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68쪽;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 1988, 49쪽. 구체적으로는 파주 오두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대동지지』 권3 交河 城池;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 1990, 126~131쪽; 김운우,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1995, 234~240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3~186쪽;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8~162쪽).

41)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53~157쪽.

42) 홍밖음, 「파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 窓』 51, 2022, 10쪽.

4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된 것에 대응하여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⁴⁾ 칠중성이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를 백제가 축조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도 한다.⁴⁵⁾ 육계토성은 강안 평지에 위치한 백제의 주거지로서 이를 방어하는 배후가 반드시 필요한데, 칠중성이 그 역할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백제 축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칠중성에서는 신라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유물도 적게나마 출토되었다. 그런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면서⁴⁶⁾ 백제 축조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⁴⁷⁾ 물론 성곽에서 백제의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수의 초기 백제계 유물 출토를 바로 백제의 축조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⁴⁸⁾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칠중성의 축조와 관련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칠중성은 7세기대의 신라 성곽과 유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만, 성곽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연용성’⁴⁹⁾이라는 점을

44) 백종오,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値」, 『선사와 고대』 68, 2022, 43쪽. 한편 동·남·서편에서 확인되는 이중 축성법이 부여 부소산성과 성흥산성 등 백제계 성곽에서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석축성(칠중성)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토성(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을 분포시키는 배치가 백제의 국도인 부여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백제가 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4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7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46) 일부 백제 토기에 대해 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47)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84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1쪽.

4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257쪽.

49)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 2023, 18쪽.

고려하면 축조 시기와 주체를 7세기대 신라로 한정할 수 없고, 앞에서 언급한 정황이나 고고 자료를 감안하면 백제가 축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칠중성에서 신라에 의한 석축만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 즉 3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토성이나 토성에 외면만 축성한 성곽을 축조하였고⁵⁰⁾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석축 성곽이 보급되었을 것⁵¹⁾이라는 견해를 감안하면 백제와 관련한 석축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제가 중성산에 석축 성곽이 아닌 다른 관방시설을 구축하였을 가능성이다. 예컨대 백제는 3세기~5세기 후반에 토성 위주의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하는데, 백제가 육계토성과 같은 토성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⁵²⁾

대모산성을 참고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모산성에서는 신라가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 성벽보다 낮은 위치에서 능선이 이어지다가 평탄해진 곳과 토루처럼 발독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백제 토기들이 있는 저장구덩이가 발견된 것을 감안하여 석축 성벽이 구축되기 이전 그 아래로 토루나 책(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³⁾ 칠중성의 성벽 외부에도 토루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신라가 석축 성벽을 구축하기 전 백제가 구축한 방어시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50)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9쪽.

51)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 1990, 7쪽.

52)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53)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33쪽 ; 민덕식, 앞의 논문, 1992, 93쪽.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보자면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경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한 백제는 중성산에 토성 혹은 토루나 책과 같은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강을 건너 한반도 중부로 진출하던 상황에서 중성산의 관방시설을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한반도 중부에 보루를 축조하거나 백제의 관방시설을 연용하였던 모습을 감안하면⁵⁴⁾ 기존의 관방시설을 이용하면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7세기 전반에 신라가 북진하여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고구려와 대치하였을 때 경기도 일대에 대거 석축 성곽을 축조하는 경향 속에서⁵⁵⁾ 지금의 모습과 같은 석축 성곽을 축조하였다고 여겨진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론일 뿐이고, 앞으로의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칠중성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한편 칠중성과 육계토성에서 출토된 삼국시기 유물을 비교해보면 백제 유물은 육계토성에서 훨씬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유물의 경우 육계토성에서는 안정된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5세기 고구려 남진기에 중요 거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⁵⁶⁾ 반면 신라 유물은 칠중성에서 대거 출토되었고, 육계토성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일대의 주역이 육계토성에서 칠중성으로 넘어갔다는 근거로, 칠중성이 백제와 고구려가 차지하였을 때에는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에 불과하였지만, 7세기 전반에 신라가 차지하였을 때에는 단순히 배후 성곽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하였음을

54)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고대사연구』 99, 2020, 251쪽; 백종오, 앞의 논문, 2023, 11쪽.

55) 임진강 유역에 석성 축조를 유행시킨 국가에 대해 신라로 보기도 한다(민덕식, 앞의 논문, 1992, 132쪽).

56)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4쪽.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⁵⁷⁾

‘칠중성’이란 성곽명에 대해 백제가 처음 축조하였을 때에는 ‘난은별(難隱別)’이라고 불렀고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비로소 칠중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⁵⁸⁾ 반면 백제가 처음 축조한 이래 계속해서 칠중성으로 불렀다고 보기도 한다.⁵⁹⁾ 정확히 언제부터 칠중성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7세기 전반 신라가 차지한 후에 칠중성의 기능이 크게 부각되면서 석축화되었고 문헌 사료에도 성곽명이 처음 등장함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본 고에서는 그 문제를 떠나서 백제가 축조한 관방시설까지 소급하여 칠중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3. 문헌 기록 속의 칠중성

가. 백제-고구려 대립과 칠중성

주지하듯이 313~314년 고구려는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소멸시켰고,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비로소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낙랑(樂浪)·대방(帶方)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371~377년 일련의 공방전 속에서 멸약산맥을 중심으로

57) 파주 육계토성은 강안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에 비해 가용 면적이 넓고 많은 인원이 주둔할 수 있는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춘 지역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1994, 24쪽;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 1995, 112쪽;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89쪽).

5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0쪽.

5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3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3쪽.

접경을 형성하였다.⁶⁰⁾ 그러다가 392년 광개토왕이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고, 이에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과 관미성을 차지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에 백제가 빼앗긴 영역을 수복하고자 393~395년에 관미성, 수곡성(水谷城-황해북도 신계)⁶¹⁾, 패수(湏水-예성강)⁶²⁾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들 전장은 모두 예성강 일대였다. 즉, 백제의 반격으로 인해 양국의 접경이 임진강 유역에서 예성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가 영토 수복을 시도하며 맞서자 광개토왕은 396년에 다시 대규모 백제 공략에 나섰는데, 백제 도성인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58성(城) 700촌(村)’을 차지함으로써⁶³⁾ 예성강-임진강-경기 서해안-한강 하류-북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⁶⁴⁾ 이때 백제는 고구려에 일시 항복하면서 도성과 한강 하류 유역을 되찾았다. 그리고 곧이어 반격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404년에는 왜(倭)를 움직여 황해도 연안으로 추정되는 대방계(帶方界)를 침략하도록 하였다.⁶⁵⁾ 왜가 대방계를 공격한 이유는 당시 고구려의 북쪽 변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예성강 이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는 398년에 쌍현성(雙峴城)을 축조하였는데, 백제 최북단에 축조된 성곽으로서⁶⁶⁾ 그 위치에 대해서는 파주 장단이

60)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170쪽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 38, 2006, 46~50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0~178쪽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 2014, 61~66쪽.

6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2, 黃海道 新溪縣

62) 『고려사』 地理志3, 黃海道 黃州牧 平州.

63) <광개토왕릉비> 永樂 6년.

64)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88~200쪽.

65) <광개토왕릉비> 永樂 14년.

66)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 2008, 18쪽.

나⁶⁷⁾ 연천⁶⁸⁾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396년 이래 양국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을 접경공간으로 설정하고 완충지대로 삼으며 대치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이후 양국의 국경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던 475년까지 고착되었다.

392~475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는 예성강 유역 혹은 임진강 유역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 칠중성은 고구려에 의해 운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마다 백제가 곧바로 탈환하면서 운용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러므로 칠중성은 대체로 백제에 의해 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96년 이래 고착화된 양국의 접경은 475년에 이르러 대변환이 이루어졌고 그 변환의 시작은 고구려의 한성 함락이었다. 이후 양국 사이의 충돌 양상을 살펴보면 512년 가불성(加弗城)과 원산성(圓山城)에서 전투를 벌여 고구려가 차지하였고, 548년에는 독산성(獨山城)에서 백제가 승리를 거두었으며, 550년에는 백제가 도살성(道薩城)을 차지하였고 고구려가 금현성(金峴城)을 포위하였다. 양국간 전투가 벌어진 가불성과 원산성은 충남 천안 일대⁷⁰⁾, 독산성은 충남 예산⁷¹⁾, 도살성과 금현성은 각각 충북 증평 도안 일대와 세종 전의면 일대⁷²⁾로 비정된다. 이로 보

67) 문안식, 앞의 책, 2006, 194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08, 18쪽.

68)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40~41쪽.

69) 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4~175쪽.

70)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2013, 138~139쪽.

71) 문안식, 앞의 책, 2006, 342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0쪽.

72)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 1999, 371쪽; 김영관,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 2008, 49~51쪽;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2쪽;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 2018, 82~83쪽.

아 양국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차령산맥과 금강 지류인 미호천 유역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접경을 형성하였다고 여겨진다.⁷³⁾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가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는데,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편입하였을 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에 있어서 임진강 유역은 4세기 후반에는 전방이었지만,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는 후방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군사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적 성격의 시설을 다수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강안)평지성인 호로그루, 연천 당포성, 연천 은대리성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⁷⁴⁾

이와 같이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의 지배를 염두하면서 지방 거점적 성격의 시설들을 축조하였지만 기존의 성곽인 칠중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임진강, 남쪽에 감악산이 있는 상황에서 칠중성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⁵⁾ 그렇다면 칠중성은 특별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제가 축조한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73)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36~145쪽.

74)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77~79쪽. 연천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 5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 2011, 105쪽).

75)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1쪽.

나. 고구려-신라 대립과 칠중성

전술하였듯이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고구려는 차령산맥과 미호천 유역까지 진출하였는데, 551년에 대변환이 일어났다. 백제와 신라가 군사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죽령(竹嶺)과 강원도 철령으로 비정⁷⁶⁾되는 고현(高峴) 사이의 고구려 10성(군)을 차지함으로써⁷⁷⁾ 한강 중상류유역을 차지하였고, 백제는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되는 한성과 아차산 일대로 비정되는 평양(平壤)을 차지함으로써 한강 하류유역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⁷⁸⁾ 하지만 백제의 한강 하류유역 차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552년 고구려와 신라가 밀약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려 하면서 553년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에서 자진 퇴각하였던 것인데⁷⁹⁾, 이 틈을 타 신라가 한성과 평양을 차지하면서 한강 하류유역마저 차지하게 된다.

신라가 차지한 한성과 평양은 전술하였듯이 각각 몽촌토성-풍납토성 일대와 아차산 일대로서 북한산 이남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북한산에 세워져 있는 <북한산순수비>는 정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⁸⁰⁾, 북한산 이북에서는 6세기 중반경의 신라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⁸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신라는 553년에 한강 하류유역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산을

76)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b, 671쪽.

77) 『삼국사기』 권44, 列傳4, 居柒夫.

78) 『일본서기』 권19, 欽明紀 12년.

79)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429~435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45~148쪽.

80)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3~85쪽.

81)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97~201쪽.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순수비〉의 경우 비문에 전하는 ‘남천주(南川州)’가 568년 10월에 설치되었다는 점, 비문에 나오는 인물인 내부지(內夫智), 무력지(武力智) 등의 관등이 568년에 건립된 〈황초령순수비〉나 〈마운령순수비〉에 나오는 관등과 동일하다는 점, 세 순수비 모두 ‘욕노뢰여유충신정성(欲勞賴如有忠信精誠)’이란 표현이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568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⁸²⁾, 그렇다면 최소한 568년까지는 신라가 북한산을 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551년부터 고구려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공격하는 603년까지 양국간 충돌 기사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7세기 초반까지 신라와 고구려는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이와 같이 6세기 중반~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가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은 여전히 고구려의 영역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제 임진강 유역은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변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에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축조하면서 방어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호로고루를 석축화한 것처럼⁸⁴⁾ 기존 성곽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거나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보루를 축조하여 차단·통제하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때 보루는 신라와의 밀약을 통해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으로 국경이 정해진 만큼 그 인근에는 축조하지 못하고⁸⁵⁾ 감악산 계곡을 지나는 도로상에

82)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 1983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68~69쪽.

83)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5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0~81쪽.

84) 연천 호로고루를 비롯한 임진강 유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석축화에 대해 6세기 중반경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양시은, 앞의 논문, 2011, 127쪽).

축조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예컨대 노리천로상에 있는 파주 파평산보루와 파주 노고산보루, 감악산 서쪽의 설마천로상에 있는 파주 감악산보루와 파주 무건리보루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그림 4).

한편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의 경우 칠중성을 북쪽에 두고 삼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칠중성이 배후로서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렸다고 볼 수 있고,⁸⁶⁾ 지역 거점성으로서의 중요성이 비로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고구려와 신라 간 소강기는 603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함으로써 끝이 난다. 즉, 7세기 초반부터 다시 양국간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때부터 칠중성이 문헌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A-①. (선덕여왕 7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자 백성들이 놀라고 동요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선덕여)왕은 대장군(大將軍) 알천(闕川)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11월에 알천이 고구려 병사와 칠중성 밖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병사가 매우 많았다.⁸⁷⁾

A-②. (영류왕) 21년(638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신라 북변의 칠중성을 침범하였다. 신라 장군 알천(闕川)

85)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87쪽.

86)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277·382쪽.

87)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7년 10~11월, “冬十月 高句麗侵北邊七重城 百姓驚擾入山谷 王命大將軍闕川 安集之 十一月 闕川與高句麗兵戰於七重城外 克之 殺虜甚衆”

이 이들을 맞이하여 칠중성 밖에서 싸웠는데, 우리 병사가 패배하였다.⁸⁸⁾

〈그림 4〉 감악산 일대의 주요 성곽과 교통로



88) 『삼국사기』 권20, 高句麗本紀8, 營留王 21년 10월, “二十一年 冬十月 侵新羅北邊 七重城 新羅將軍閼川逆之 戰於七重城外 我兵敗”

기사 A에는 638년 10~11월에 고구려와 신라가 칠중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양상이 담겨 있는데, 문헌 자료에서 칠중성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⁸⁹⁾ 기사에 따르면 고구려가 신라 칠중성을 공격하였고 이에 백성이 동요하면서 거주지를 떠나 산골짜기로 피신하자⁹⁰⁾ 신라 조정이 대장군(大將軍) 알천(闕川)을 보내 백성의 동요를 무마하는 한편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고 한다.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을 때 신라 조정이 대장군을 파견하였다는 것은 중앙군의 파견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앙군과 한주(漢州)의 지방군이 동원되어 칠중성 사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라가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성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칠중성의 백성이 동요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칠중성 인근 변경지역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⁹¹⁾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백성을 동원한 성곽의 석축화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⁹²⁾ 그렇다면 신라군이 수성전 대신 성바깥에서 싸우는 전술을 펼친 것은 칠중성 성곽의 방어력에 대한 불확신성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당시 칠중성은 수성전 수행보다는 군사들에게 군량 보급이나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유리한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강한

89) 『대동지지』 권3, 積城 典故를 보면 603년에 고구려와 말갈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603년 ‘고구려의 신라 북한산성 공격’의 오기로 추정된다(김덕원, 2019, 앞의 논문, 344~345쪽).

90) 칠중성 남쪽에 위치한 감악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91) 신라가 임진강 이남지역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거의 완벽한 상황에서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정책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병력을 활용한 사례로 보기도 한다(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5쪽).

92) 신라 성곽의 석축 시점에 대해 강력한 전제왕권이 확립되었고 9州 5小京과 9營 10亭이 완비되었던 신문왕(681~692년)대로 추정하기도 한다(백종오, 앞의 논문, 2022, 39쪽).

성곽⁹³⁾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본 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638년 당시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한 성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475년 이래 고구려가 차지했던 칠중성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신라가 차지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629년 신라의 낭비성(娘臂城) 차지가 주목된다. 낭비성은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高句麗) 한산주(漢山州)에 보이는 견성군(堅城郡)의 고구려 지명인 비성군(臂城郡)으로, ‘마홀군(馬忽郡)’이라고도 불렀고 반월산성에서 ‘마홀(馬忽)’명 기와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월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⁹⁴⁾ 그렇다면 629년부터 신라가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넘어 임진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칠중성 또한 차지하였다고 여겨진다.⁹⁵⁾

하지만 칠중성이 신라의 북변에 위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진강 유역 이남만 차지하였다고 여겨지는데, 고구려가 칠중성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이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인데, 660년 10월까지 이와 같은 접경 양상은 계속 이어졌다.

B-①. (무열왕 7년-660년) 11월 1일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침공하였는데, 군주(軍主) 필부(匹夫)가 죽었다.⁹⁶⁾

B-②. 태종대왕은 …… 필부(匹夫)를 칠중성의 현령(縣令)

93)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94)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사학지』 28, 1995; 박중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95)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38쪽;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47~350쪽.

96) 『삼국사기』 권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년 11월, “十一月一日 高句麗侵攻七重城 軍主匹夫死之”

으로 삼았다. 그 다음해인 경신(660년) 가을 7월에 (신라가) 당의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하여 겨울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와서 칠중성을 포위하였다. 필부가 지키고 또한 싸운 지 20여 일이 되자, 적장은 우리의 사졸이 정성을 다해 싸울 때 자신을 돌보지 않음을 보고,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다고 일컬으며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자) 역신인 대나마(大奈麻) 비삽(比歎)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적에게 알리기를, 성내의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였으니, 만약 공격한다면 반드시 항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적이 드디어 다시 싸웠다. …… 이에 (필부가) 군사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충신과 의사(義士)는 죽을 지라도 굽히지 않는다. 힘써 노력하라! 성의 존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먹을 쥐고 한번 외치자 병든 자까지 모두 일어나 다투어 앞에 올랐다. 그러나 사기가 피곤하며 죽고 다친 자가 반을 넘었다. 적은 바람을 타면서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여 들이닥쳤다. 필부는 상간(上干) 본숙(本宿), 모지(謀支),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하여 맞서 활을 쏘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이 비 오듯 하였는데, 몸이 뚫리고 터지면서 피가 흘러 발꿈치에 이르렀고 이에 쓰러져 죽었다. (태종)대왕이 이를 듣고 매우 슬피 울면서 급찬으로 추증하였다.⁹⁷⁾

97) 『삼국사기』 권47, 列傳7, 匹夫, “太宗大王 …… 以匹夫爲七重城下縣令 其明年庚申秋七月 王與唐師滅百濟 於是 高句麗疾我 以冬十月發兵 來圍七重城 匹夫守且戰二十餘日 賊將見我士卒盡誠 鬪不內顧 謂不可猝拔 便欲引還 逆臣大奈麻比歎密遣人告賊 以城內食盡力窮 若攻之必降 賊遂復戰 …… 乃告軍士曰 忠臣義士 死且不屈 勉哉努力 城之存亡 在此一戰 乃奮拳一呼 病者皆起 爭先登 而士氣疲乏 死傷過半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李宿·謀支·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 大王聞之 哭甚痛 追贈級賞”

기사 B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직후인 660년 10~11월에⁹⁸⁾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를 보면 전투가 일어나기 전 칠중성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655년에 고구려는 백제 및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33성을 탈취한 바 있다. 그런데 660년 당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칠중성은 고구려에 빼앗긴 33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33성의 범위는 임진강 유역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⁹⁹⁾ 전투 직전까지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660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양국이 임진강 유역에서 대치하면서 이복은 고구려,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는 칠중성을 차지하기 위해 장기전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신라 조정은 칠중성 전투에 대비하면서 필부(匹夫)를 파견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양국 모두 칠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략과 사수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¹⁰⁰⁾ 한편 필부의 파견 당시 관명에 대해서 기사 B-①에는 ‘군주(軍主)’, 기사 B-②에는 ‘현령(縣令)’으로 나온다. 필부는 그 아버지가 제6관등 아찬(阿飡)이었고 전투가 끝난 후 제9관등 급찬(級飡)으로 추증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칠중성 파견 당시 6두품 출신의 제10관등 대나마(大奈麻)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군주는 군단의 지휘관이자 주(州)의 장관으로 급찬~이찬(伊飡)이 임명되었는데,¹⁰¹⁾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필부는 현령으로 임명되어 칠중

98) 칠중성 전투의 개시 시점에 대해 기사 B-①에는 11월 1일, 기사 B-②에는 10월 이라고 나오는데, 대체로 10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9) 신라 33성의 범위에 대한 견해와 참고 문헌은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한산주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51~5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00)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10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성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¹⁰²⁾

필부는 휘하에 ‘상간(上干)’을 거느리고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상간은 지방세력에게 부여하는 외위(外位) 가운데 제5관등이다. 즉, 필부는 중앙군이 백제 부흥운동 진압에 나섬에 따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¹⁰³⁾ 상간을 통해 칠중성의 지방민을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칠중성 전투에 비삽(比敵)이 대나마로 참전하였다고 하는데, 필부가 현령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관등이 대나마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삽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현령으로서 전투에 참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⁰⁴⁾ 그렇다면 다른 현(縣)에서도 지방민이 동원되어 전투에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즉, 신라는 칠중성 관할 현과 그 주변 현의 병력을 동원하여 칠중성 사수에 나섰던 것이다.

양국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는데, 고구려군은 원사 공격과 화공 위주로 칠중성 공략에 나섰다. 이는 날씨와 성곽의 상황을 적절히 활용한 전술이었다. 전투가 전개된 시기는 1월 겨울이었다. 그리고 칠중성은 상대적으로 동쪽과 남쪽이 낮다. 즉, 결빙기에 맞추어¹⁰⁵⁾ 임진강을 도하하면서 겨울에 부는 북서풍을 이용한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칠중성에서 가

102) 기사 B-①에 나오는 ‘軍主’에 대하여 관직명이 아닌 일반명사로 이해하기도 한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쪽).

10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161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73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0~62쪽.

104) 기사 B-②에 나오는 ‘七重城下縣令’을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으로 해석하면 서 匹夫와 比敵 모두 칠중성 관할 현의 현령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칠중성에 대해 여러 현을 거느린 郡城이나 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거점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4~65쪽). 그러나 칠중성이 郡으로 승격된 적이 없고 來蘇郡에 속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105) 임진강의 결빙기는 대체로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라고 한다(이준선, 앞의 논문, 2005, 164쪽).

장 취약한 동남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던 것이다.

당시 칠중성 전투는 ‘고구려가 다시 임진강 이남을 차지하면서 북한산과 임진강-한강 분수령으로 국경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신라가 ‘이를 저지하느냐’라는 기로의 전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결과에 따라 양국의 접경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위의 기사를 보면 누가 승리를 거두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전황을 보면 고구려가 원사 공격과 화공으로 거세게 몰아붙이는 형세였고, 신라는 전투 수행과정에서 반역자가 발생하고 병사는 피로하였으며 사상자가 절반이 넘었고 전투의 최고 지휘관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전황은 고구려가 승리하여 칠중성을 차지하였다고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다수이다.¹⁰⁶⁾

하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C-①. (문무왕 2년(662년) 1월) (문무)왕이 (김)유신(庾信)과 (김)인문(仁問),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에게 명하여 수레 2천여 대로 쌀 4천 석과 조(租) 2만 2천여 석을 실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18일에는 풍수촌(風樹村)에서 묵었다. 얼음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군량을) 모두 소와 말에 실었다. 23일에는 칠중하(七重河)를 건너 산양(蒜壤)에 이르렀다. 귀당(貴幢) 제감(弟監) 성천(星川)과 군사(軍師) 술천(述川) 등은 이현(梨峴)에

10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33쪽; 서영일, 앞의 논문, 2001, 40~41쪽; 노태돈, 앞의 책, 2009, 161쪽;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1쪽; 이영재, 앞의 논문, 2018, 18쪽;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60쪽;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7쪽; 김병희·서영교, 앞의 논문, 2021, 67쪽;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8쪽.

서 적병(고구려군)을 만났는데 그들을 공격하여 죽였다. 2월 1일에 유신 등은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평양에서 36,000보 떨어져 있었다.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 등 15인을 보내 당(唐)의 군영에 가게 하였다. 이날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 사람과 말이 많이 동사하였다. 6일에는 양오(楊隩)에 이르렀다. 유신이 아찬(阿漘) 양도와 대감(大監) 인선(仁仙) 등을 보내 군량을 내주었고, …… 소정방(蘇定方)은 군량을 얻고는 곧 싸움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유신 등은 당의 군사가 돌아갔다는 것을 듣고 또한 군대를 돌려 과천(瓢川)을 건넜다.¹⁰⁷⁾

- C-②.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부장군(副將軍) (김)인문(仁問), (김)진복(眞服), (김)양도(良圖) 등 아홉 장군과 더불어 병사를 이끌며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임술(662년) 정월 23일에 칠중하(七重河)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배에) 먼저 오르지 않았다. …… (김유신이)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너자 모든 장졸이 서로 쫓아서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 (고구려인이) 큰길에서 잠복하였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험한 데로 행군하였다. 산양(蒜壤)에 이르러 …… 이에 북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길에서 적병을 만났는데, 반격하여 그들을 이겼고 획득한 갑옷과 병사가 매우 많았다. 장새(障塞)의 험한 곳

107)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2년 1~2월,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 …… 十八日 宿風樹村 冰滑道險 車不得行 並載以牛馬 二十三日 渡七重河 至蒜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 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是日風雪寒沍 人馬多凍死 六日 至楊隩 庾信遣阿漘良圖·大監仁仙等致軍糧 …… 定方得軍糧 便罷還 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川”

에 이르러 매서운 추위를 만났고, 사람과 말은 몹시 피로하여 이따금 엎어져 죽었다. …… 마침내 험한 곳을 지나고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 (열기가) 드디어 장사(壯士) 구근(仇近) 등 15명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여 소장군(蘇將軍-소정방)을 만나 말하길, “유신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미 가까운 곳에 도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유신 등의 행렬이 양오(楊陝)에 이르러 …… 당(唐)의 진영에 왕의 뜻으로써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소)정방(定方)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능히 싸울 수 없었는데, 군량을 얻자 곧 당으로 돌아갔다. 양도는 병사 800명으로써 바다로 환국하였다. 이때 (고구)려인이 병사를 매복시켜 아군을 돌아오는 길에 요격하고자 하였다. …… (신라군은) 밤중에 몰래 행군하여 표하(虜河)에 이르렀고 (김유신은) 급하게 (강을) 건너 언덕에서 병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고구)려인이 이를 알고 추격하였다.¹⁰⁸⁾

기사 C에는 662년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서 평양성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당군에게 군량을 보급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기사

108) 『삼국사기』 권42, 列傳2, 金庾信,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問·真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糧 入高句麗之界 壬戌正月二十三日 至七重河 人皆恐懼 不敢先登 …… 遂先自上船而濟 諸將卒相隨渡河 入高句麗之境 慮麗人要於大路 遂自險隘以行 至於蒜壤 …… 乃鼓行向平壤 路逢賊兵 逆擊克之 所得甲兵甚多 至獐塞之險 會天寒烈 人馬疲憊 往往僵仆 …… 遂過險 距平壤不遠 …… 遂與壯士仇近等十五人 詣平壤 見蘇將軍曰 庾信等領兵致資糧 已達近境 …… 庾信等行抵楊陝 …… 達唐營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迴唐 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 時麗人伏兵 欲要擊我軍於歸路 …… 夜半潛行至虜河 急渡岸休兵 麗人知之來追”

에 따르면 신라군은 1월에 출발하여 풍수촌(風樹村)-칠중하-산양(蒜壤)-이현(梨峴)-장새(獐塞)-양오(楊隩)를 거쳐 당군에게 군량을 전달하였다. 신라가 경유한 곳 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위치 비정이 가능한 것은 칠중하와 장새이다.¹⁰⁹⁾ 칠중하는 칠중성 근처에 흐르는 임진강, 장새는 신라 한주(漢州) 오관군(五關郡) 장새현(獐塞縣)으로 황해북도 수안으로 비정되는데¹¹⁰⁾, 그렇다면 신라군은 설마천로나¹¹¹⁾ 혹은 감악산 동쪽의 간파천로를 이용해 임진강에 이르렀고, 임진강을 건넌 다음에는 멸악산맥을 넘는 여러 고갯길 가운데 하나인 신계-수안로를 통해 수안을 거친 후¹¹²⁾ 방원령을 통해 언진산맥을 넘고 황해북도 연산을 지나¹¹³⁾ 평양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의 식량 운송은 육로보다는 해로가 유리하다. 하지만 신라는 해로 대신 육로 운송을 택하였다. 만약 신라군이 해로로 운송한다면 우선 해주만을 지나야 하는데, 그 일대는 고구려가 수군기지를 두고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¹¹⁴⁾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야 하는 황해도 장산곶 앞바다는 고려~조선시

109) 임진강 이북과 황해북도 수안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蒜壤과 梨峴에 대해 각각 황해북도 금천 일대의 달래가 많았던 한 평탄지, 멸악산맥 일대의 배나무가 많았던 한 고개로 비정하기도 한다(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 작전」, 『국방연구』 55-3, 2012, 105~108쪽). 그리고 楊隩에 대해서는 평양시 강동군(이병도, 앞의 책, 1976a, 631쪽)이나 버드나무가 많은 대동강 연안의 유포리(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14쪽)로 비정하기도 한다.

110) 『삼국사기』 권35, 雜志4, 地理2, 新羅 獐塞縣.

111)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 2005, 197쪽;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52쪽.

112)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7쪽. 신라군이 임진강 도하 후에 개성과 삭녕 사이의 마식령산맥을 넘어 그대로 북상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황해도 장단과 금천을 잇는 소로를 이용하여 은밀히 행군하였다는 것이다(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7쪽).

113)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114)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 2021, 28쪽.

기에 조운선 왕래를 꺼려할 만큼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¹¹⁵⁾ 마지막으로 지나야하는 대동강의 경우는 계절상 결빙으로 인해 운송 선단에 적지 않은 장애를 주었으리라 여겨진다.¹¹⁶⁾ 즉, 해로를 통한 운송은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고구려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군량을 수송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육로 그것도 멸악산맥을 넘는 데 있어 가장 험준한 고개를 이용하고 언진산맥을 통과하는 고난의 길을 택해야만 했다.

기사 C-①에 따르면 신라군은 칠중하를 건너 이현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의 첫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기사 C-②에 따르면 신라군이 칠중하 도하를 두려워하였고, 군량 보급을 마친 후에는 서둘러 돌아오면서 표하(虜河, 과천(瓢川)), 즉 임진강을 건너서야 비로소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는데, 두 기사 모두 여전히 임진강이 양국의 국경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사 C-②에 보이는 ‘신라군이 강을 건너 고구려의 경계로 들어갔다’는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662년 1~2월까지도 여전히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 양국의 국경은 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661년 1~2월에도 양국의 국경이 임진강 유역이었다고 한다면 660년 11월 칠중성 전투는 신라가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62년에 신라군이 풍수촌에서 순조롭게 칠중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¹¹⁷⁾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임진강 이남을 지켜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기사 B-②에서 보이듯이 무열왕은 전투 중에 전사한 필부

115) 여호규, 앞의 논문, 2020, 258~261쪽.

116) 이상훈, 앞의 논문, 2012, 104쪽.

11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3쪽 ; 김택원, 앞의 논문, 2019, 353쪽.

를 급찬으로 추증하였는데, 그가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추증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661년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한 바 있는데, 술천성(述川城)으로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고 한다. 대체로 술천성은 경기도 여주 흥천면,¹¹⁸⁾ 북한산성은 아차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¹¹⁹⁾ 그렇다면 북한강 수계와 남한강 본류를 경유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칠중성에서 설마천로 혹은 간파천로를 통해 양주 분지를 지나고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의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최단 코스¹²⁰⁾를 이용해 진군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칠중성을 포함해 임진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위와 같이 우회하여 북한산성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¹²¹⁾

신라는 629~638년 사이에 처음 칠중성을 차지한 이래 최소한 662년 11월까지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¹²²⁾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칠중성의 점유 주체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118)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197쪽.

119)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2014, 32쪽;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한국사학보』 74, 2019, 308쪽.

120)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12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쪽; 고창민, 앞의 논문, 2021, 68쪽.

122) 고구려가 660년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성곽을 차지하였지만 662년 이전에 스스로 철군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6쪽), 그 이유로 임진강 이남이라는 한계로 인한 지속적인 물자 보급과 대신라전 후퇴시 불리, 對 당군 침략방어 주력 등을 들기도 한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4~76쪽). 그러나 고구려가 성곽을 차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과 663년 즈음에 결국 차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答薛仁貴書>에 언급되었다는 점(이영재, 앞의 논문, 2018, 21쪽)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D-①. “건봉(乾封) 2년(667년)에 이르러 대총관(大揚管) 영국공(英國公-이세적)이 요(遼-고구려)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자, 나(문무왕)는 한성주(漢城州)에 가서 병사를 보내 경계에서 가까운 지역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신라 병마가 홀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선 간자를 세 번 보냈고 배를 연이어 띄어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자가 돌아와서 모두 운운하기를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도로를 열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영공(英公)이 보낸 강심(江深)이 와서 운운하기를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마는 성을 칠 필요 없이 서둘러 평양으로 나아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고 하였고, 행렬이 수곡성(水谷城)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마는 드디어 곧 빠져 나왔습니다.”¹²³⁾

D-②. (문무왕 7년(667) 7월) 가을 8월에 (문무)왕이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수도를 출발하였다. 9월에는 한성정(漢城停)에 이르러 영공(英公-이세적)을 기다렸다. 겨울 10월 2일에는 영공이 평양성 북쪽 200리 거리에 도달하였다. (영공이) 이동혜(兪同兮) 촌주(村主) 대나마(大奈麻) 강심(江深)을 보냈는데, (강심은) 거란 기병 80여 명을 거느리고 아진함성(阿珍含城)을 거쳐 한

123)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至乾封二年 聞大總管英國公征遼某往漢城州 遣兵集於界首 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覘候大軍細作迴來並云 大軍未到平壤 且打高麗七重城 開通道路 佇待大軍來至 其城垂垂欲破 英公使人江深來云 奉大總管處分 新羅兵馬不須打城 早赴平壤 即給兵糧遣 令赴會 行至水谷城 聞大軍已迴 新羅兵馬 遂即抽來”

성(漢城)에 이르렀다. (영공이) 편지를 전하여 출병 시기를 독촉하자 대왕이 이를 따랐다. 11월 11일에 장새(獐塞)에 이르렀는데, 영공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왕의 군대 또한 돌아왔다.¹²⁴⁾

기사 D에는 667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 담겨져 있는데, D-①은 신라의 당 공격에 대한 설인귀(薛仁貴)의 항의 서신을 받은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냈다는 답서 이른바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의 내용 일부이고 D-②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세적(李世勣)이 이끄는 당군은 평양으로 진군하였고, 문무왕이 이끄는 신라군은 한성주(漢城州)에 주둔하면서 당군의 평양성 진군에 맞추어 합류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원래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파주(적성)-장단-개성-금천을 거친 다음 평산-서흥로를 이용해 멸악산맥을 넘는 이른바 자비령로¹²⁵⁾를 통해 진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평양성 부근에 도착한 이세적이 서둘러 평양으로 합류할 것을 요청하면서 신라군은 우회하여 평양성으로 진군하였다. 그런데 진군 도중에 당군의 회군 소식이 들리면서 신라군 역시 회군하였는데, 회군 소식을 들은 곳에 대해 기사 D-①에는 수곡성, 기사 D-②에는 장새라고 나온다. 수곡성은 황해북도 신계, 장새는 황해북도 수안이다. 신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로는 신계-수안로를 택해 언진산맥을 넘어 대동강을 따라가는 길과 신계-서흥로를 택해 멸악산맥을

124)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7년 8~11월, “秋八月 王領大角千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九月 至漢城亭 以待英公 冬十月二日 英公到平壤城北二百里 差遣 余同兮村主大奈麻江深 率契丹騎兵八十餘人 歷阿珍舍城至漢城 移書以督兵期 大王從之 十一月十一日 至獐塞 聞英公歸 王兵亦遇”

125)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2쪽.

넘은 다음 재령강과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다.¹²⁶⁾ 전자의 경우 언진산맥을 넘어야 하는 험준함이 있는데, 신라군이 이세적의 독촉으로 인해 서둘러 진군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길을 통해 평양성으로 진군하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당의 회군 소식을 들은 곳은 수곡성으로 추정된다.

전술하였듯이 신라군은 칠중성을 거쳐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하였는데, 기사 D-①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진군로를 열고자 하였다고 한다. 662~667년 사이에 신라는 고구려에게 칠중성을 빼앗긴 것이다. 고구려가 어느 시점에 칠중성을 차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663년 즈음에 신라가 백제 부흥세력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 틈을 타서 고구려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고구려의 점유 기간은 길지 못하였다.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629년 신라가 낭비성을 차지한 이래 고구려가 멸망하는 668년까지 40년여 간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임진강 북쪽을 총괄하는 사령부로 호로고루를 삼으면서, 임진강 북안에 파주 덕진산성 등의 성곽을 축조하거나 연천 무등리보루 등의 보루를 축조함으로써 전열을 정비하였다. 반면 신라는 임진강 남안을 따라가며 고구려 성곽에 대응하는 지점에 성곽을 축조하였는데, 칠중성을 비롯해 파주 오두산성, 파주 봉서산성, 파주 이잔미성, 연천 대전리산성 등의 대형 산성을 지형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축조하

126) 멸약산맥을 넘는 대표적인 고갯길로는 신계-수안로, 신계-서흥로, 평산-서흥로, 해주-재령로 등이 있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4쪽 ;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62쪽).

였고, 그 사이에는 보루를 축조하여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⁷⁾ 즉, 임진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구려의 성곽과 보루 그리고 임진강 남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라의 성곽과 보루는 당시 양국의 침예한 대립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다. 나당전쟁과 칠중성

임진강 유역은 삼국간 대립 속에서 항상 긴장감이 맴돌았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긴장감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주지하듯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 및 백제를 멸망시킨 당이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故地)는 물론 신라까지 통할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에 신라가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나당전쟁이 벌어졌다. 당군은 신라의 지원을 받은 요동(遼東)의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며 672년 7월에 평양성에 주둔하였다. 이후 당군은 8월에 대동강 하류¹²⁸⁾의 한시성(韓始城)과 마읍성(馬邑城)을 차지하였고, 황해북도 서흥으로 추정되는¹²⁹⁾ 석문(石門)에서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하면서 멸악산맥을 넘어 한반도 중남부로 진격할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673년 5월에는 호로하(瓠瀟河) 즉 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군마저 격파하면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나당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진강 유역이 또다시 전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9월에 신라가 호로하에서 당군을 물리치면서 전장은 예성강 방향으로 이동되었다.¹³⁰⁾

127) 심광주, 앞의 논문, 2009, 73~74쪽.

128)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83, 181쪽.

129) 이병도, 앞의 책, 1983, 181쪽.

130) 여호규, 앞의 논문, 2022, 88~89쪽.

이후 나당전쟁은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에 의해 평정되면서 신라와 당 사이의 대결 양상으로 변모하였고, 짧은 소강기를 거쳐 675년 2월 당군의 침공으로 재개되었는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E-①. (문무왕 5년-675년)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칠중성에서 우리(신라) 병사를 깨뜨렸다. 인궤는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고,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鎮撫大使)로 삼아 경략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비로소 사신을 보내 입공하고 사죄하자, 황제(당고종)는 그를 용서하고 왕의 관작을 회복시켰다. …… 그러나 (신라는) 백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마침내 고구려 남쪽 경계를 쳐서 주(州)와 군(郡)으로 삼았다. 당병이 거란 및 말갈과 더불어 침범한다는 말을 듣고 9군(九軍)을 보내 그들에 대비하였다. …… (9월) 29일에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하였는데, 아군(신라군)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하고, 전마(戰馬) 30,380필을 얻었으며, 남아 있는 병장기도 그 정도였다. …… 당병이 거란 및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에워쌌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소수(小守) 유동(儒冬)이 죽었다. 당의 병사 또한 석현성(石峴城)을 에워싸고 빼앗았는데, 현령(縣令) 선백(仙伯)과 실모(悉毛) 등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¹³¹⁾

131)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5년 2·9월, “二月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 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 …… 然多取百濟地 遂抵高句麗南境爲州郡 聞唐兵與契丹·靺鞨兵來侵 出九軍待之 ……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 三百八十匹 其餘兵仗稱是 …… 唐兵與契丹·靺鞨兵 來圍七重城 不克 小守儒冬 死之 唐兵又圍石峴城 拔之 縣令仙伯·悉毛等力戰 死之”

E-②. 상원(上元) 2년(675년) 2월에 (유)인궤(仁軌)가 칠중성에서 그 무리(신라군)를 깨뜨렸고 말갈 병사로써 바다를 건너 (신라) 남쪽 경계를 침략하였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조서를 내려 이근행(李謹行)을 안동진무대사(安東鎭撫大使)로 삼고 매소성(買肖城)에 주둔시켰는데, 세 번 싸워 로(虜-신라군)가 모두 패하였다.¹³²⁾

E-③. (합형) 5년(674년)에 (유)인궤가 계림도대총관(鷄林道大總管)이 되어 동쪽으로 신라를 정벌하였다. (유)인궤(仁軌)는 병사를 이끌고 호로하(瓠盧河)를 곧바로 건너 그 북방의 대진(大鎭)인 칠중성을 격파하였다.¹³³⁾

기사 E에는 675년에 있었던 신라군과 당군 사이의 일련의 전투가 담겨져 있다. 기사를 종합해보면 2월에 유인궤(劉仁軌)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당군은 호로하를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다. 서북한에서 예성강과 임진강을 건너 칠중성으로 진군하였던 것이다. 칠중성 공격 당시 당군은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칠중성을 ‘대진(大鎭)’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나당전쟁기에도 칠중성이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인 기사 E-①과 『신당서』의 기록인 기사 E-②를 비교하면 내용상 차이가 있다. 기사 E-①에는 2월에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린 후에 병사를 이끌

132) 『신당서』 권220, 列傳145, 新羅,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聚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衆 詔李謹行為安東鎭撫大使 屯買肖城 三戰 虜皆北”

133) 『구당서』 권84, 列傳34, 劉仁軌, “五年 爲鷄林道大總管 東伐新羅 仁軌率兵徑度瓠盧河 破其北方大鎭七重城”

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반면 기사 E-②에는 유인궤가 칠중성에서 신라군을 깨뜨리고 말갈 군사를 신라의 남쪽 변경으로 보내 승리한 후에 병사를 이끌고 귀국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기사 E-①에는 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나, 기사 E-②에는 당군이 승리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같은 한국측 사료와 중국측 사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유리한 내용을 취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한국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¹³⁴⁾

기사 E-①을 보면 당시 양국은 칠중성 외에 매소성과 석현성 등에서도 전투를 벌였다. 매소성은 대체로 대전리산성으로 비정되고 있고¹³⁵⁾, 석현성은 전술하였듯이 파주 일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675년 9월에 설인궤가 이끄는 당군이 천성(泉城)을 공격한 바 있는데, 천성은 대체로 ‘천정구(泉井口)’로 불린 임진강·한강 하구의 오두산성으로 비정된다.¹³⁶⁾ 즉, 양국은 675년에 이르러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접경을 형성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한편 기사를 보면 9월 매소성 전투 후에 신라군과 당군이 칠중성에서 또다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나오는데, 2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깨뜨렸다고 나오고(破) 9월 전투에서는 당군이 칠중성을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오면서(來圍), 어색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에 당군이 차지하였지만 9월 이전에 신라가 탈환하면서 당군이 재차 공격한

134)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역사학보』 44, 1969.

135)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179쪽;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 2007, 114쪽.

136)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 2000, 199쪽.

것으로 보는 견해¹³⁷⁾, 2월에 당군이 함락하지 못하면서 9월에 재차 함락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다.¹³⁸⁾

최근에는 중국측 사료와 국내전승 자료를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695년 2월에만 전투가 벌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¹³⁹⁾, 칠중성을 둘러싼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전개 양상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675년 2월과 9월의 칠중성 전투를 동일한 전투로 보고 기사를 종합해본다면 675년 2월 당군은 칠중성을 깨뜨렸지만 함락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수군을 동원하여 천성을 공격하였지만 이마저도 함락에 실패하자, 칠중성보다 방어가 취약한 매소성으로 집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⁰⁾

칠중성 전투에서 당군이 승리하였다면 손쉽게 양주 분지나 한강 유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하지 못하면서 매소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매소성에서도 패배하고 만다. 반면 신라군은 매소성에서 승리함으로써 전쟁 승기를 잡을 수 있었고, 이듬해인 676년 11월에 기벌포(伎伐浦)에서 당군을 격파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칠중성 전투의 승리는 나아가 나당전쟁의 승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137)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215쪽.

138)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41~146쪽 ; 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56~357쪽.

139)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299~302쪽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128~132쪽.

140) 이상훈, 앞의 논문, 2022, 149쪽.

4. 맺음말 -칠중성의 전략적 위상-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 사이의 접경으로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임진강은 양안에 높이가 10m 내외의 수직 절벽이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도하 세력에 대한 방어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량이 적고 강폭이 좁아서 수직 절벽이 발달하지 않은 구간에는 특별한 장비 없이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여울이나 작은 배를 이용해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도하로는 임진강을 건너 남·북진하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모두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울이나 나루터 근처에는 군사시설이 대거 구축되어 있다.¹⁴¹⁾

이 가운데 사미천의 합류로 인해 형성된 술탄(가여울)과 고랑포 맞은편의 호로탄은 임진강 최하류의 여울로서 고대 이래 매우 중요한 도하로로 주목을 받았다(그림 5).¹⁴²⁾ 특히 술탄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수심이 무릎 이하이고, 폭은 300~400m에 달하면서¹⁴³⁾ 언제든지 대규모의 병력 이동이 가능하였는데, 임진강 이남에서 술탄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자리 잡은 성곽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즉, 칠중성은 술탄 도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14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12~14쪽. 예전대 수내나루, 덕진나루, 장산나루 주변에는 파주 덕진산성, 호로탄 주변에는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이잔미성, 술탄 주변에는 파주 육계토성, 당개나루 주변에는 연천 당포성, 유진나루 주변에는 연천 무등리보루, 장군나루와 한여울 주변에는 연천 대전리산성이 있다.

142)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쪽;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책, 1994, 43쪽;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1999, 230쪽.

143) 이준선, 앞의 논문, 2004, 11쪽; 앞의 논문, 2005, 181쪽.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칠중성에서는 호로탄에 대한 조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호로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술탄과 호로탄의 남쪽 강안에는 각각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성곽은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백제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칠중성은 육계토성과 이잔미성의 배후 성곽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칠중성 주변의 여울과 주요 성곽(구글 어스)



칠중성의 또 다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점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곽이 위치한 적성면에는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서 감악산 서쪽으로 설마천을 따라 형성된 설마천로(감악산서로, 적성서로), 감악산 동쪽으로 간파천을 따라 형성된 간파천로(감악산동로, 적성동로)가 있는데, 두 길 모두 양주 분지(천보산맥)를 지나면서 중랑천을 따라 한강 본류로 이어진다.¹⁴⁴⁾ 즉, 두 교통로 모두 양주,

144)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46쪽.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것이다(그림 4).

한편 설마천로는 북쪽으로 술탄과 호로탄 등의 여울과 이어지고, 간파천로는 북쪽으로 당개나루와 이어진다. 즉, 북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하여 한강 유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설마천로를 선택함이 유리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두 교통로 가운데 설마천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칠중성은 설마천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감악산에서 양주 분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¹⁴⁵⁾

방향을 바꾸어 적성면에서 술탄이나 호로탄을 통해 임진강을 건너면 장단, 개성,¹⁴⁶⁾ 금천, 평산, 서흥, 황주를 거쳐 평양으로 이르는 교통로가 있다. 즉, 칠중성은 임진강의 여울 통제를 통해 한반도 서북부와 중부 지역을 잇는 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개성-장단-양주-의정부-서울 교통로¹⁴⁷⁾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한 성곽이었던 것이다(그림 6).¹⁴⁸⁾ 이와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 또한 임진강 유역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 되면서 칠중성은 남진세력과 북진세력 모두에게 진군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칠중성이 삼국과 신라·당 사이의 접경이었던 임진강 유역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성곽이었지만 처음부터 중요시된 것은 아니었다. 3세기 중반 이래 임진강을 경계로

145)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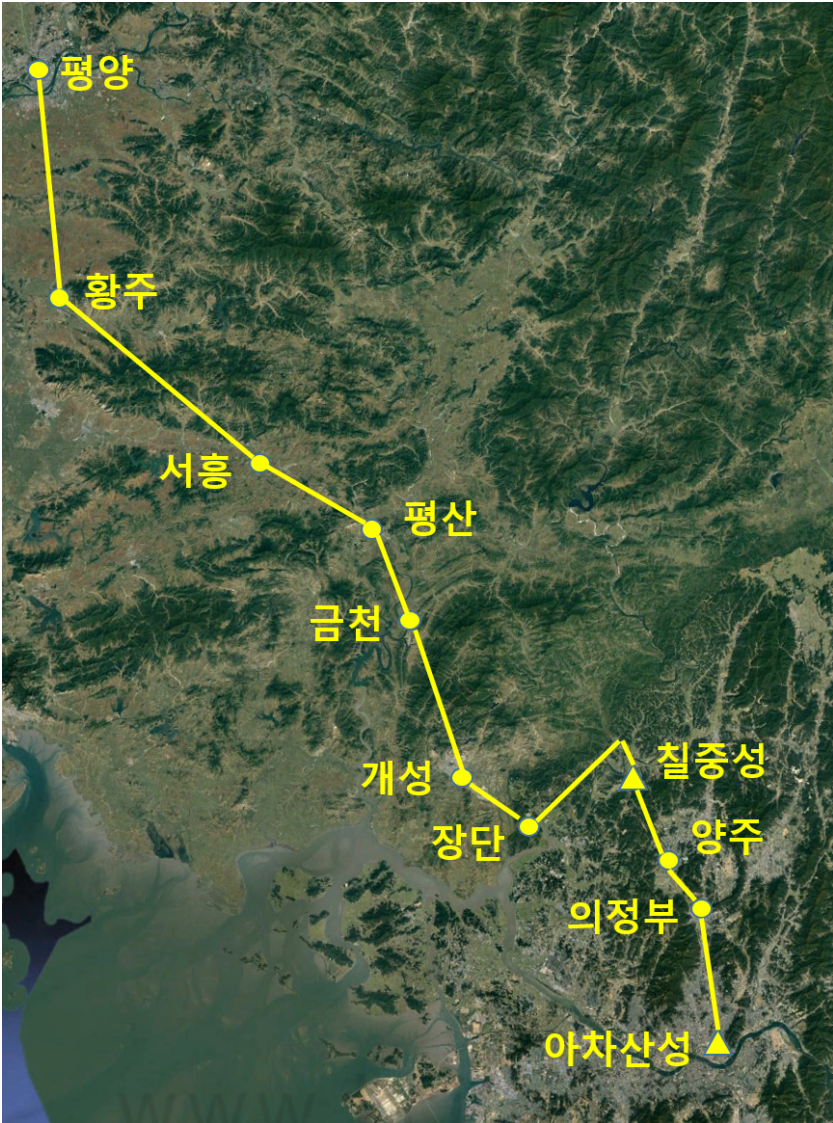
146) 개성은 해주-신원-재령으로 이어지는 길, 이른바 재령로가 지나가기도 한다(서영일, 앞의 논문, 2006, 45쪽).

147) 도중에 건너는 임진강의 여울이 최하류에 위치함에 따라 평양과 서울을 잇는 최단 코스가 되기도 하였다.

148) 적성면에서는 이성산성-양진-한양군-내소군-중성현-장단현-임강현-우봉군-영풍군-오관군-취성군-평양으로 이어지는 장단도로(정요근, 앞의 논문, 2005, 205쪽), 적성-장단-석주원리-구화리-위천리-금천-평산으로 이어지는 黃卵嶺路 등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김덕원, 앞의 논문, 2019, 361~363쪽).

말갈과 낙랑 그리고 고구려와 대치하였던 백제는 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성곽을 축조하면서 최전방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육계

〈그림 6〉 평양 - 서울 간 교통로(구글 어스)



토성과 파주 월룡산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고¹⁴⁹⁾ 칠중성은 육계토성의 배후 성곽으로 활용하였다.¹⁵⁰⁾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후방이라는 성격 속에서 지역 지배를 위한 거점성들을 대거 축조하였다. 하지만 6세기 중반에 북한산과 한강-임진강 분수령을 따라 신라와 접경을 형성하면서 임진강 유역이 전방으로 변모하자 인근의 성곽을 개·보수하는 한편 임진강을 잇는 주요 교통로에 보루를 축조하였는데, 이때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린 거점성으로서 칠중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고 여겨진다.

7세기 전반에 이르면 신라와 고구려가 임진강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성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만약 고구려가 다시 남진하여 칠중성을 차지하게 되면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 그리고 북진의 거점성 역할을 하던 북한산성으로 빠르게 진군할 수 있음으로써¹⁵¹⁾ 한강 유역 진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칠중성은 신라에 있어 임진강을 건넌 고구려군의 남진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전투가 벌어지면 신라는 중앙군과 인근의 지방민까지 동원하여 사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칠중성의 기능이 나당전쟁기까지 이어짐에 따라 당군도 여러 차례 칠중성을 공략하였다. 칠중성은 한강 유역으로의 진군을 막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강하였지만, 반대로 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신라군이 평양성으로 진군하고자 할 때 칠중성을 가장 먼저 공략하고자 하였던

149)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 2001, 391쪽.

150) 칠중성을 육계토성, 가월리토성, 범바위토성 등을 거느린 성곽으로 보기도 한다 (홍재선, 앞의 논문, 1983, 15~18쪽).

151)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72쪽.

것이다.

한편 칠중성 전투에 인근 지방민까지 동원되었던 모습은 칠중성을 거점으로 신라의 성곽 방어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당시 칠중성은 간파천로상의 아미성과 수철성 그리고 설마천로상의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를 거느리는 거점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²⁾ 또한 칠중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세기에 반월산성과 더불어 신라 임진강-한탄강 방어선의 주요 거점성으로서 활용되었던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¹⁵³⁾

152) 다만 감악산보루와 무건리보루에서는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신라가 칠중성을 차지하였을 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1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앞의 책, 2001, 256쪽.

〈참고문헌〉

1. 자료

경기도박물관, 『임진강(2)』,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2000.

<http://uci.or.kr//G901:A-0006000682>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http://uci.or.kr//G901:A-000615411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1.

<http://uci.or.kr//G001+HISTORY-33039037>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1990.

<http://uci.or.kr//G701:B-0011842690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http://uci.or.kr//G901:A-0008458655>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6a.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83.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4-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한국고대사회연구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Ⅱ(신라1·가야편)』, 가락사적개발연구원, 1992.

한양대학교 박물관·경기도, 『경기도 백제문화유적』, 1986.

한양대학교 박물관·문화인류학과,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http://uci.or.kr//G901:A-0008640453>

2. 저서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http://uci.or.kr//G901:A-0006217265>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http://uci.or.kr//G901:A-0006138819>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http://uci.or.kr//G901:A-0005982950>
-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b.
<http://uci.or.kr//G701:B-00115824598>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http://uci.or.kr//G901:A-0006393181>
-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七支刀』, 吉川弘文館, 1977.
-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第1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3. 논문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한산주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47-84
<https://doi.org/10.222827/seoul.2021.109002>
- 권창혁, 「나당전쟁 시기 매소성 전투와 신라의 북방전선」, 『한국고대사연구』 95(2019); 289-330
<http://dx.doi.org/10.37331/JKAH.2019.09.95.289>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2019); 333-371
<http://dx.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 김병희 · 서영교,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매소성의 위치 비정 및 말갈 수군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 118(2021); 45-95
<http://dx.doi.org/10.29212/mh.2021.118.45>

-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7세기 신라와 백제의 외교전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4(2004); 23-38
<http://uci.or.kr//G704-001251.2004..24.015>
- 김영관, 「古代 淸州地域의 歷史的 動向」, 『백산학보』 47(2008); 31-79
<http://uci.or.kr//G704-001252.2008..82.003>
- 김윤우, 「廣開土王의 南下征伐地에 대한 一考-關彌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高句麗 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1995); 207-243
<http://uci.or.kr//G001+HISTORY-32315619>
- 김진영, 「경기지역 신라고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 김창호, 「新羅中古 金石文의 人名表記(1)」, 『대구사학』 22(1983); 1-36
http://uci.or.kr//G001+NIKH-kh_KH.NIKH.hb_041_02_000073
- 민덕식,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1989); 145-198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10742858>
- 민덕식, 「백제 한성기의 한강 이북 교통로에 관한 시고(상)-백제 초기 도성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 『선사와 고대』 2(1992); 85-115
<http://uci.or.kr//G706+NLF02-F.oaiInfo.CNTS-00007105189>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2011); 57-96
<http://uci.or.kr//G704-000054.2011..82.016>
- 박종서, 「고구려 娘臂城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2010); 109-152
<http://dx.doi.org/10.36093/ks.2010..17.004>
- 박종서, 「고구려 고국원왕-광개토태왕대 남진로 검토」, 『사학지』 49(2014); 57-82
<http://uci.or.kr//I410-ECN-0102-2015-900-002083021>
- 백종오, 「六溪土城의 調査·研究成果와 歷史的 價値」, 『선사와 고대』 68(2022); 5-60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0988313>

- 백종오, 「중원문화권 관방유적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선사와 고대』 71(2023); 5-33
<https://doi.org/10.23024/pah.2023..71>
-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사학지』 28(1995); 17-37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1094929>
-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남경 고찰」, 『고구려연구』 11(2001); 27-45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68288>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공격로 고찰」, 『사학지』 38(2006); 41-67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525418>
- 서영일, 「한성 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서울과 역사』 72(2008); 41-76
<http://dx.doi.org/10.22827/seoul.2008..72.002>
- 심광주, 「삼국의 쟁투지 칠중성」, 『파주시지(5)-파주역사』, 파주시(2009); 65-82
- 양기석,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문화사학』 11·12·13(1999); 357-385
<http://uci.or.kr//G901:A-0001762368>
-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2011); 101-131
<http://uci.or.kr//I410-ECN-0102-2023-900-001020003>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48(2012); 169-213
<http://uci.or.kr//G704-000054.2012..84.012>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高句麗와 百濟의 국경 변천」, 『백제 문화』 48(2013); 129-152
<http://dx.doi.org/10.35300/bjclab.1.48.201302.129>
- 여호규,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한국 고대사연구』 99(2020); 233-274
<http://dx.doi.org/10.37331/JKAH.2020.09.99.233>
- 여호규, 「고대의 연천」, 『漣川郡誌(2)-연천의 역사』, 연천군지편찬위원회 (2022); 35-106

- 윤무병, 「산성·왕성·사비군성」, 『백제연구』 21(1990); 5-11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한국사학보』 74(2019); 289-318
<http://dx.doi.org/10.21490/jskh.2019.02.74.289>
- 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45-78
<https://doi.org/10.35160/sjekh.2022.08.41.45>
- 윤일녕, 「關彌城位置考」, 『북악사론』 2(1990); 103-163
<http://uci.or.kr//G903:HI00118459060>
-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 29(2007); 89-123
<http://uci.or.kr//G704-001251.2007..29.006>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2012); 97-122
<http://dx.doi.org/10.23011/jnds.2012.55.3.005>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125-157
<https://doi.org/10.35160/sjekh.2022.08.41.125>
- 이영재, 「660년대 고구려의 대남방 전략」, 『대구사학』 130(2018); 27-64
<http://dx.doi.org/10.17751/DHR.130.27>
- 이재, 「임진강 유역 산성 지표조사 보고」, 『문화재』 28(1995); 108-127
<http://uci.or.kr//G901:A-0003269542>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2019); 39-68
<http://dx.doi.org/10.31218/TRKH.2019.06.134.39>
- 이준선, 「적성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그 배경」, 『문화역사지리』 16-3 (2004); 1-18
<http://uci.or.kr//G704-001361.2004.16.3.002>
- 이준선, 「칠중성과 고랑포의 역사지리적 고찰」, 『애산학보』 31(2005); 151-194
<http://uci.or.kr//I410-ECN-0102-2010-911-000877197>

- 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 35-78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신라사학보』 38(2016); 65-113
<http://uci.or.kr//G704-002006.2016..38.006>
- 장학근, 「신라의 정복지 지배·방어전략-대당전쟁을 중심으로-」, 『군사』 41(2000); 181-215
<http://uci.or.kr//G901:A-0001432081>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2018); 79-112
<http://dx.doi.org/10.35300/bjclab..58.201802.79>
- 정동민, 「4세기 후반 高句麗의 南方 接境과 廣開土王의 對百濟戰 水軍 운용」, 『한국고대사탐구』 38(2021); 9-42
<http://dx.doi.org/10.35160/sjekh.2021.08.38.9>
-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147-184
<https://doi.org/10.35160/sjekh.2022.12.42.147>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2002); 37-72
<http://uci.or.kr//G704-000054.2002..46.003>
- 정요근, 「7~11세기 경기도 북부지역에서의 간선교통로 변천과 '장단도로」, 『한국사연구』 131(2005); 191-222
<http://uci.or.kr//G704-000361.2005..131.006>
- 존. C. 재미슨,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역사학보』 44(1969); 1-10
<http://uci.or.kr//G001+KERIS-11136992>
- 지종학, 「임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과주 적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2018); 73-87
<https://doi.org/10.35149/jakpg.2018.28.3.006>
- 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下)」, 『한국학보』 3(1976); 112-156
<http://uci.or.kr//1410-ECN-0102-2008-910-000446158>

천관우, 「廣開土王의 征服活動」, 『한국사 시민강좌』 3, 일조각(1988); 45-60

<http://uci.or.kr//G901:A-0000731487>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사충』 81 (2014); 3-36

<http://dx.doi.org/10.16957/sa..81.201401.3>

홍밝음, 「파주 육계토성 실체를 드러내다」, 『문화재之窗』 51(2022); 8-11

홍재선, 「적성 칠중성 조사약보」, 『불교미술』 7(1983); 13-31

<http://uci.or.kr//G001+KERIS-11160076>

(Abstract)

Overall review of Chiljungseong Castle and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Jung, Dong-Min

Chiljungseong Castle is a fortress in Paju, Gyeonggido province, and is highly regarded as an important historical reference point in that its location is clearly identified. First, this paper attempted to deduce the subject and tim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castle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Next, this study approached Chiljungseong Castle, which has appeared in the literature record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identified border patterns at that time through changes in sovereignty. Lastly, this study studied the strategic position of Chiljungseong Castle.

It is believed that Baekje, which advanced to the Imjingang River basin around the late 3rd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built Chiljungseong Castle in the form of an earthen fortification, an earthwork, or a wooden fence. In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Goguryeo occupied the Imjingang River basin and occupied Chiljungseong Castle, and it is presumed that it was used as it was without significant alterations. Later, in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Silla occupied the castle and built a stone fortress.

Chiljungseong Castle was a place where it was possible to monitor and control whether Sultana and Horotan near the Imjingang River crossed the river, which allowed it to connect or disconnect the Pyongyang-Seoul transportation route. The castle was an important transportation point, and as the Imjingang River basin became a border between the Three Kingdoms and Silla and Tang Dynasty, Chiljungseong Castle became the first gateway to attack wherever a nation entered the South or North.

In the first half of the 7th century, the importance of Chiljungseong

Castle emerged greatly as Silla and Goguryeo faced off on the border of the Imjingang River. This is because if Goguryeo occupied the castle, it could take the lead in advancing into the Hangang River by defending the Hangang River basin and quickly marching to Bukhansanseong Fortress, which served as a base for the north. As a result, Chiljungseong Castle became a strategic point for Silla to defend Goguryeo's southern advance, and this function continued until the NaTang War. In addition, Chiljungseong Castle served as a stronghold with Amiseong Castle, Suchulseong Castle, Gamaksan Bastion on Sulmachun Road, and Mugunri Bastion at a time when Silla's fortress defense system was in operation. Furthermore, along with Pocheon Banwolsanseong Fortress, it was reborn as the core of the Imjingang River–Hantangang River defense line in the 7th century.

Keywords : Chiljungseong, Imjingang River, Sultan,
Hangang River, Bukhansanseong Fortress